

수도권 주택거래·입주물량 확대 한 달만에 주담대 4.3조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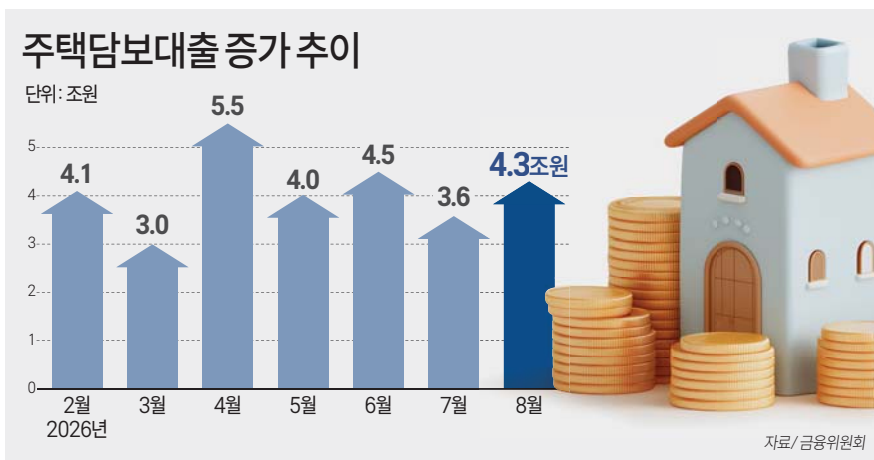
금융위, 8월 가계대출·부채 점검
가계대출 잔액 1198.3조, 3.4조 ↑
주담대 증가폭 전월비 7000억 확대
금리 상승기 차주 상환부담 우려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4조3000억원 늘며 전월(3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이후 수도권 주택거래와 입주물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가졌다. 은행권의 8월 가계대출 잔액은 1198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2조9000억원, 정책성 대출이 1조1000억원 각각 늘어난 반면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증가폭은 전월보다 더 커졌다. 8월 주담대는 4조3000억원 늘어 7월 증가폭인 3조6000억원을 7000억원 웃돌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와 입주물량이 늘면서 주택구입 및 잔금 수요가 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4만9000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 역시 3월 2만3000호에서 4월 2만7000호, 5월 2만8000호로 늘었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도 7월 1만8000호에서 8월 1만9000호로 증가했다.



다만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8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감소해 전월 9000억원 증가에서 감소 전환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 가계대출이 5000억원 줄어 전월(-6000억원)보다 감소폭이 축소됐다. 저축은행은 3000억원 증가했지만 전월(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반면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각 3000억원씩 감소하며 전월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월 2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폭인 6조4000억원보다 크게 축소됐다.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기타대출 감소와 제2금융권 대출 감소가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을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

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의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유도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향후 금융권의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유도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퇴직연금 계좌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하나은행, 만기 보유시 ‘복리 효과’

하나은행은퇴직연금 계좌(DC·IRP)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장기·안정적인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하나은행 퇴직연금 DC·IRP 계좌를 통해 10만원 단위로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에 연복리가 적용돼 장기 투자에 따른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채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

에 대한 과세가 퇴직연금 적립금 인출 시점까지 지연된다. 만 55세 이후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돼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월 20일 발행된다. 9월 청약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이달에는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한 청약도 가능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장기 복리 효과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다양한 투자 성향과 은퇴 준비 수요에 맞춰 퇴직연금 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투자 확대”

하노이 시장과 사업현황·협력 논의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최근 방한한 부 다이 탕(Vu Dai Thang) 하노이 시장을 만나 베트남 사업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부 다이 탕 하노이 시장은 켄 타인 만 베트남 국회의장과 함께 지난 6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했으며, 하노이 시 인프라 투자 활성화 관련 논의를 위해 지난 8일 대우건설을 비롯한 국내기업과 면담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은 지난 30여년간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현지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다”며 “특히 스타레이크 신도시를 기반으로 현지 기업 및 한국 기업의 투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베트남에서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신도시·인프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스타레이크 신도시의 성공적인 완성과 하노이시의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기관 이전과 토지보상,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노



지난 8일 서울 소공동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만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오른쪽)과 부 다이 탕 베트남 하노이 시장. /대우건설

이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우건설도 정부기관 이전과 연계한 추가 오피스 개발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스타레이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다.

부 다이 탕 하노이 시장은 “대우건설이 하노이시의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하노이시의 미래를 위해 대우건설의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스타레이크시티 사업부지 토지보상과 정부기관 이전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으며, 신도시의 잔여 사업이 조속히 완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개인사업자 연체액 15.2조… 4.3% 증가

2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

2금융 연체액 12.5조, 전체의 80%
은행업권 연체액 2.7% 수준 그쳐
대출 보유 사업장 50.9만곳 ‘폐업’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대출 부실과 폐업 관련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금액과 더불어 폐업 사업장 수가 모두 증가했다. 매출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면서 비용 부담이 가중된 탓이다.

9일 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 2분기 국내 총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금액은 1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분기 대비 4.3% 증가했다.

연체 금액은 제2금융권에 집중됐다. 비은행업권 연체 금액은 12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은행업권 소상공인 연체액은 2조7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업권별 대출 잔액 대비 연체 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대부업 등 기타(11.8%)를 제외하고 상호저축은행이 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상호금융(3.5%), 여신전문금융사(1.2%), 보험사(0.3%)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비은행권 개인사업자 연체액은 지난해 3분기 10조9000억원에서 4분기 10조5000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올해 1분기 11조9000억원, 2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자영업자가 가게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시스

분기 1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반년 새 급반등했다.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비금융권의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연체 금액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분기 개인사업자 총대출 잔액은 736조원이다. 이 가운데 은행권이 434조원, 비은행권이 302조원으로 각각 60%, 40%가량을 차지한다.

대출을 보유한 채 문을 닫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사업장은 362만5000개로, 이 중 폐업한 사업장은 50만9000개(14.0%)로 집계됐다.

특히, 비은행권 대출을 보유한 폐업 사업장 비중은 17.5%로 은행권(7.8%)의 두 배를 웃돌았다. 폐업 비중은 지난해 말

17.3%에서 지난 1분기 17.2% 소폭 줄어든다. 2분기 다시 확대됐다.

업권별로는 상호저축은행이 10.3%로 가장 높았고 여신전문금융사(7.9%), 상호금융(5.8%) 순이었다.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보다 지출이 더 커지면서 금융 체력이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2분기 사업장당 평균 매출(4711만원)은 지난해 동기 대비 4.53% 증가했다. 동시에 평균 지출(3522만원)은 5.83% 늘면서 매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 연말 소상공인 대출 공급을 더 확대한다. 특히, 이달부터는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델(SCB)을 시범 운영한다. SCB는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델이다.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우리은행, 우수 중견기업 최대 300억 대출

산업부 협력 ‘라이징 리더스300’

혁신 생태계 구축 45개 기업 선정

우리은행이산업통상부와협력해 우수 중견기업의 성장을 종합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산업통상부와 함께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의 8기 기업 45개사를 최종 선정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Rising Leaders 300’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차세대 산업의 핵심 주자로 육성하는 생산적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우리은행과 산업통상부가 지난 2023년부터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이번 8기는 작기 지원을 위해 모집공고 시기를 전년 대비 한 달 앞당겼다. 특히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기존 DX(디지털 대전환) 분야를 AX(인공지능 대전

환) 분야로 개편했다. 지원 기업은 산업통상부 산하 4개 기관의 추천과 우리은행의 심사를 거쳐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유망 중견기업 45개사가 선정됐다.

우리은행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업체당 최대 300억원의 대출과 초년도 기준 최대 1.0%포인트(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수출입 금융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기업승계 솔루션 등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도 지원한다.

박화근 우리은행 기업영업전략본부장은 “하반기 8기 공고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유망 기업들을 조기 발굴해 역대 가장 많은 45개사를 선정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라며 “글로벌 경제 최전선에서 뛰는 중견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